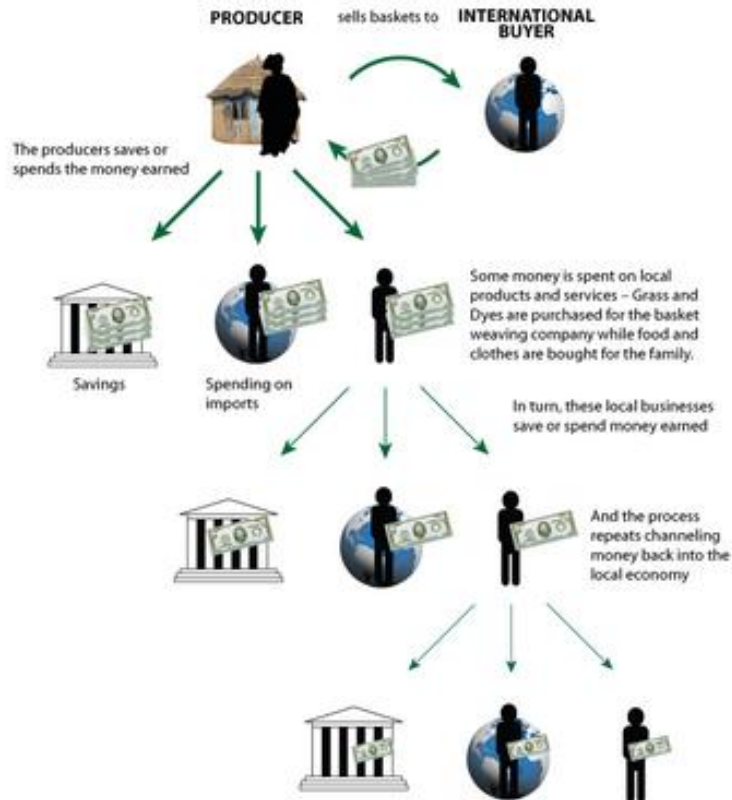


마을기금
전문가 과정⑤ (2013.8.6)

공동체기금 조성 접근전략 및 방법론

승수효과 (Multiplier Effect)



승수효과(乘數效果)란
일정한 경제순환의 과정에서 어떤 부문
또는 어떤 기업에 새로이 **투자**가 이루어
지면 그것이 **유효수요** 확대로 파급되어,
사회 전체적으로는 처음의 투자 증가분
(Δ)의 몇배나 되는 소득증가(Δ)를 창출
하게 되는데 이 배율(Δ/Δ)을 **승수**라고
하며 이 효과를 승수효과라 한다.

- ✓ **정부**나 민간**기업**의 투자확대
 - **임금** 지불, **생산재** 구입에 총당
 - 관계자의 **소득** 증가로 이어짐
 - 생산재 관계자의 소득을 높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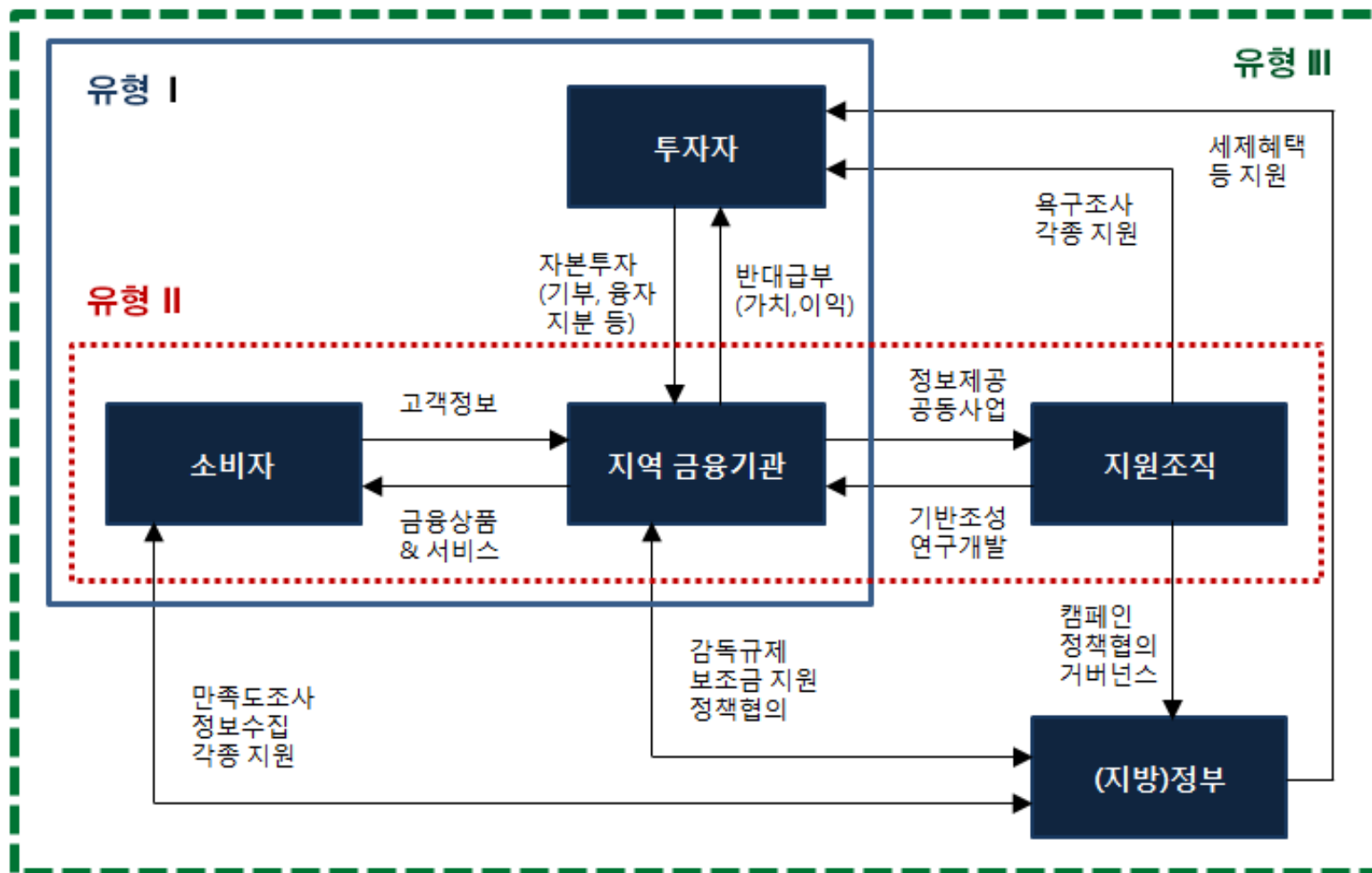


- ✓ 800개의 소기업 창업
- ✓ 9천 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
- ✓ 공공주택 보급 등 사회서비스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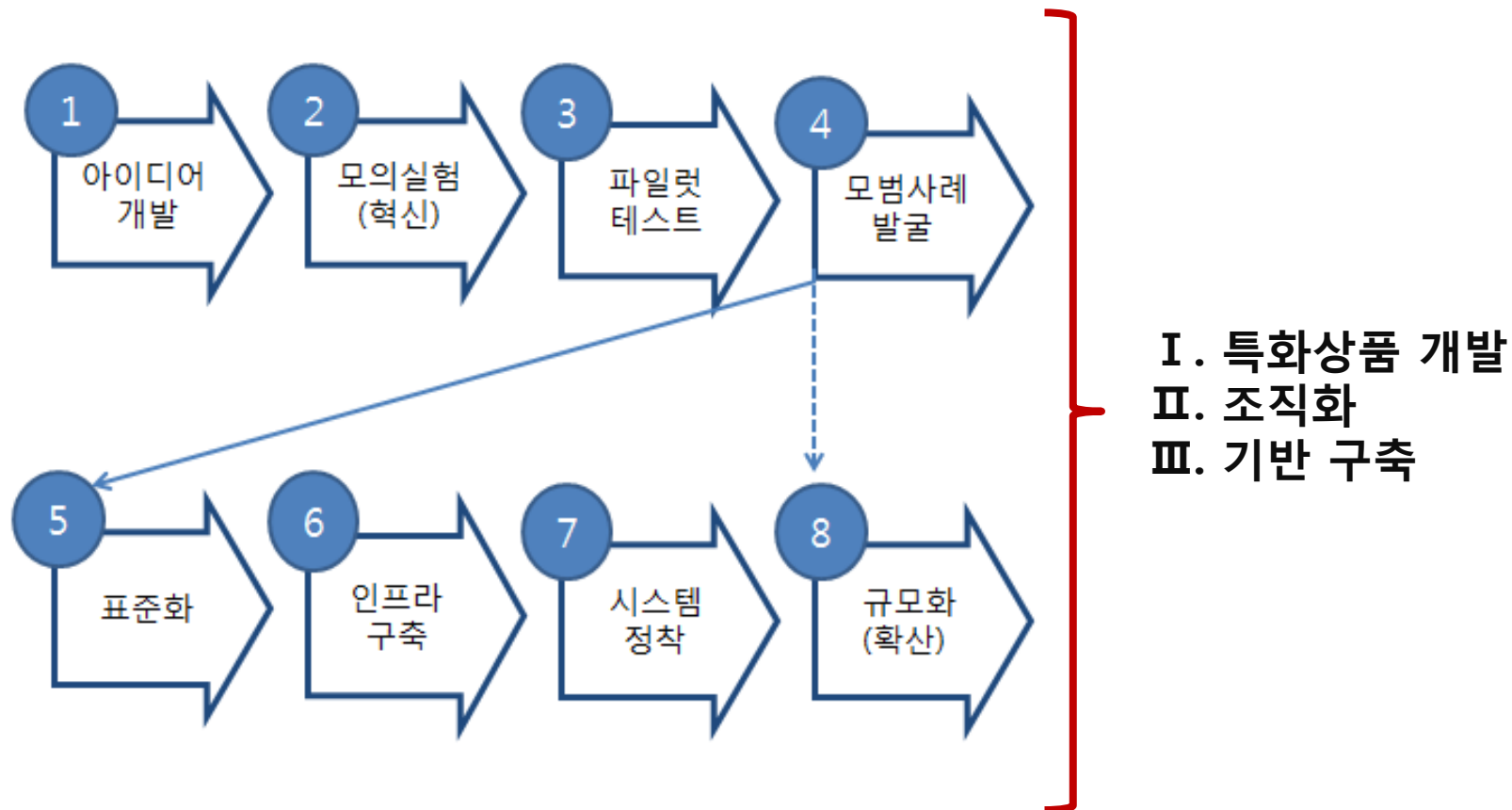
➡ 약 2억 불의 경제적 가치 생산

- ✓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“금융”의 상관관계
- ✓ 공동체 안에서 내부자원의 선 순환구조를 창출
- ✓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을 설립해야 하는 이유
- ✓ 사회적 경제 블록을 위한 금융 생태계 조성의 의의

지역금융 생태계 조성



지역금융 생태계 조성



5가지 핵심 질문



- ✓ 마을기금(지역재단)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?
- ✓ 어디에서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?
- ✓ 조달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?
- ✓ 활용 가능한 금융 지원수단은 무엇인가?
- ✓ 기금 운영주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?

마을기금 설립 3가지 접근전략

1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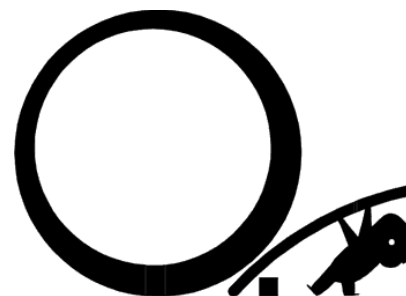
자체 기금 조성

2



지.자.체 협력

3



기존 금융기관 활용

융합과 통섭

- ✓ 어느 것도 자기 완결적이지 못함
 - ✓ 각각의 전략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결과물을 응집해야 함
 - ✓ 우선순위 및 집중도는 객관적 조건에 따라 다름
 - ✓ 경험적으로 2번(지.자.체 협력)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
-
- 무엇을 최우선 전략으로 가져갈 것인가?
 - 결과물을 응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?
 - 외국의 성공사례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?
 - 한국의 경우, 선행 사례나 축적된 경험이 있는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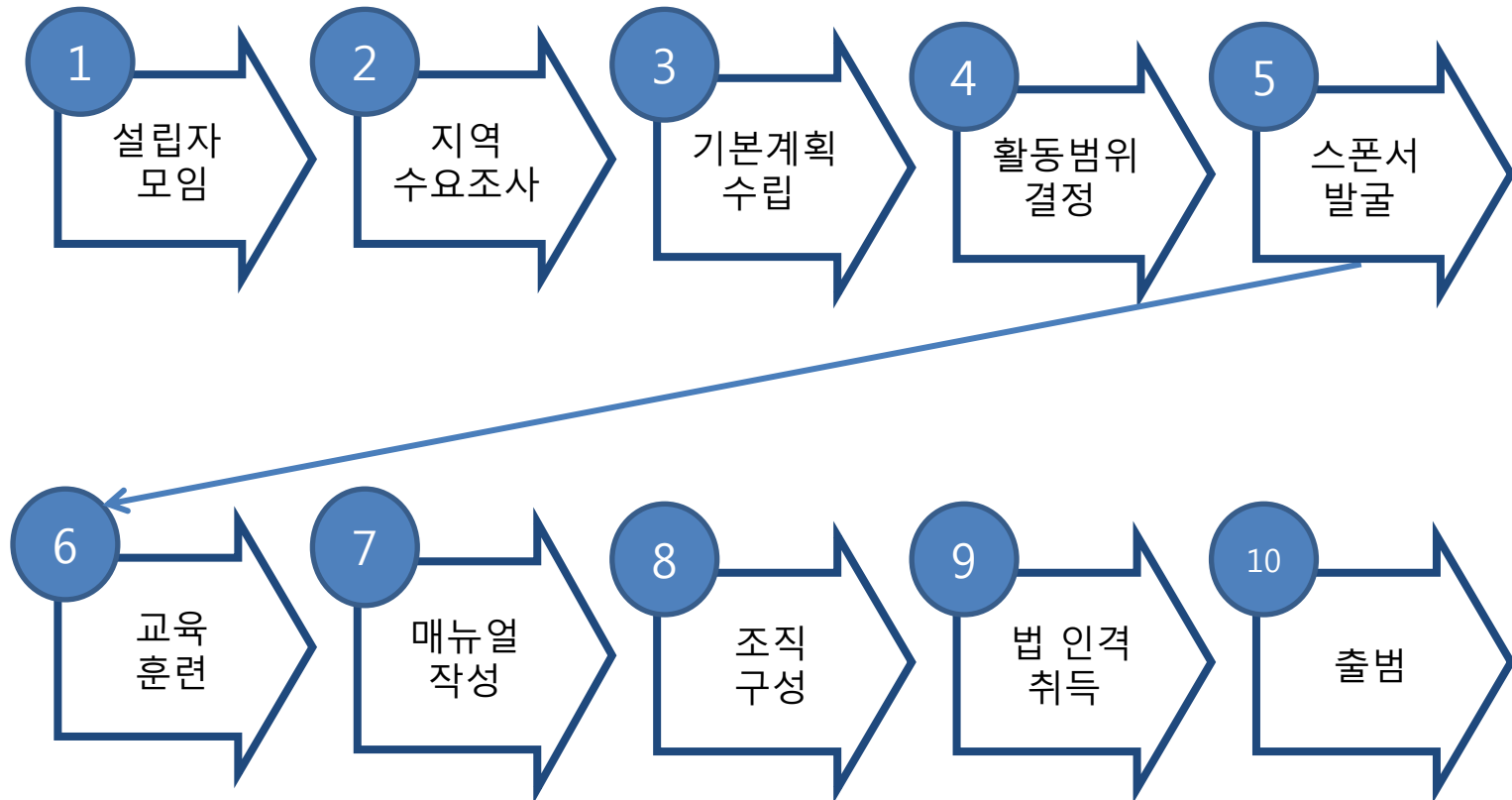
1. 거버넌스 구성

- ✓ 자조기금 + 지방정부 및 지역 금융기관의 참여
- ✓ 지향하는 목표 및 이해관계가 일치
 - 자조기금 : 민간 참여주체 및 자원 동원능력 있음 증거
 - 지방정부 : 지역발전을 위한 기금 설립 의의 동의
 - 지역 금융기관 : 고객 확보 등 조직 발전에 유리
- ✓ 필요조건 (자조기금) + 충분조건 (정부, 지역금융기관)
- ✓ 지방정부가 지렛대 역할을 해주는 경우 많음
- ✓ 각 층위(마을, 기초, 광역)별 운영전략 차이 존재

2. 독립적 운영

- ✓ 협동조합 기본원칙(자조, 자립, 자치) 준수
- ✓ 공동의 목표를 추출할 수 있는가?...가 관건임
 - 핵심질문 5가지 상기
 - 지방정부 : 우호적 환경 조성 등 업무협조
 - 지역 금융기관 : 기금 운영에 대한 실질적 도움
- ✓ 법 인격 : 대부업체 or 비영리 재단법인
- ✓ 기금 규모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원칙+기본 준수
- ✓ 단계별 성장전략 : 마을에서 자치구로 확장 !

마을기금 조성 프로세스



기금 설립 3요소

- ✓ 돈(자금)+사람(운영인력)+관리(시스템)
 - ✓ 돈 : 자금 규모보다는 참여(출자) 인원수가 중요
 - ✓ 사람 : 전문성보다는 열정과 의지가 중요
 - ✓ 관리 : 입,출금 내역관리 등 기본적인 Software로도 충분
-
- 설립 발기인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?
 - 전담인력 인건비 등 초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?
 - 관리 시스템을 장착하기 위해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?
 - 기금 안정성 유지 & 실질적 혜택의 균형점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?

몇 가지 유의사항

- ✓ 무분별한 외부 자원의 동원은 “화”를 부른다.
 - ✓ 운영주체를 분명히 세우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.
 - ✓ 기금 조성보다 중요한 것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.
 - ✓ 모든 큰 것들의 출발점은 가장 작은 단위의 흐름이었다.
 - ✓ 어디에 얼마를 쓰느냐 보다,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.
-
- 내생적 발전구조를 담보할 수 있는 길은 자조금융 뿐이다.
 - 발기인들의 생각과 가치가 기금의 미래를 결정한다.
 - 구체적 수요를 알지 못하면, 기금은 무용지물이다.
 - 풀뿌리 기금의 운영원리를 알아야 더 큰 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.
 - 구태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필요하다.



- ✓ 2011.3월 출범
- ✓ 동자동 사랑방마을 공제 협동조합
- ✓ 외부 지원 결합 (한국교회봉사단)

- ✓ 공동출자 기금 (1계좌, 5천 원)
- ✓ 조합원 수 380명 (2012.12 현재)
- ✓ 무담보, 무이자 대출방식
 - 긴급자금(주거, 의료, 생활) 사용목적
 - 최대 50만원 한도
 - 자립 자활을 목표로 한 생활형 대출
- ✓ 후원금 모집 등 재정 안정을 위한 행사 실시

우리가 마을기금을 고민해야 하는 진짜 이유



- ✓ 마을 기금은 단순히 사람들이 낸 돈이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 맺은 관계 형성의 원인이며 결과물임. 마을기금은 마을사업을 위한 귀중한 자원의 집합체며,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줄 수 있는 보루이기도 함



- ✓ 인간은 이기적임과 동시에 이타적이다.
- ✓ 공유지의 비극, 사회적 딜레마는 극복될 수 있다.
- ✓ 협동의 선 순환을 가져오는 것은 “신뢰”다
- ✓ 신뢰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를 통해 만들어진다.
- ✓ 사회적 경제는 협동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성장한다.
- ✓ 사회적 경제의 궁극적 목표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.

감사합니다



한국사회적금융연구원